

◆ 스페인 엔데사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입찰경쟁 치열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및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등 발전 플랜트 업체가 스페인에서 시행되는 천연가스 연료형 복합화력발전소(총 출력 400MW)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스페인 최대 전력회사인 엔데사(ENDESA)이다. 계약 형태는 풀 턴키(Full Turn-key) 조건으로, 동 발전소는 가스 터빈 및 증기 터빈을 각 1기씩 갖추고 운영된다. 소요 자금 조달과 관련, 발주사의 자체 자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수주업체 측에 의한 자금조성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동 프로젝트 입찰에는 현지 기업인 드

라가도스(Dragados)와 제휴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참여가 주목받고 있는데, 동사는 최근 유럽 지역을 발전설비의 중점시장으로서 선정하고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특히 스페인, 이태리, 영국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내 지명도가 높은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동사는 스페인에서 1200만 MW급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를 미국 AES로부터 4억 5,000만 달러에 수주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엔데사 이외에도 미국의 독립발전사업자(IPP)들이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유럽 및 일본 선진 업체의 각축이 예상되고 있다.

【金 廷 勳】